

2022 년 7 월 14 일

KT-CJ ENM, OTT 경쟁력 강화 위해 Seezn-Tving 통합

KT는 OTT 경쟁력 강화와 미디어·콘텐츠 성장 가속화를 위해 CJ ENM과 함께 양사가 보유한 OTT 플랫폼(KT-Seezn, CJ ENM-Tving)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eezn을 Tving으로 합병하고 KT 스튜디오지니가 합병법인(Tving)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여 합병법인의 3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은 KT와 CJ ENM이 체결한 '콘텐츠 사업 전방위 사업협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3월 CJ ENM의 KT스튜디오지니에 대한 1천억원 투자 결정과 지난 7월 KT 무선요금제에 'Tving'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인 데 이어 세번째 협력입니다. KT와 CJ ENM은 미디어·콘텐츠 주요 회사의 지분을 상호 보유하여 공동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였고,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KT스튜디오지니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CJ ENM에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OTT 플랫폼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OTT 시장에서 글로벌 OTT에 대응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종합 미디어 사업자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KT는 올해부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2년에 선보인 <구필수는 없다>가 넷플릭스 Top 10에 진입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에 오르는 등 미디어·콘텐츠 사업에서의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T는 사업역량을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외부 플레이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KT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성장 스토리를 투자자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 본 자료에 서술된 재무, 영업실적 등은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측정보는 시장환경 변화, 회사의 전략수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 약정, 투자결정 등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